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한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과 자살충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 - 가족지지와 친구지지, 교사지지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

노윤채*, 신정숙**, 박희서***

The Effects of Experienced violence in school on Suicidal Impulse in Adolescents for Policy Implications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Support, Friend's Support and Teacher's Support -

Noh, Yun-Chae *, Sin, Jungsook **, Park, Hwiaseo ***

요약

이 연구는 청소년 학교폭력피해경험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조절변수로 포함한 인과모형을 작성하여 검증해 봄으로써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208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피해경험, 우울, 자살충동의 척도와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의 척도로 구성된 설문을 실시하여 그 변인들 간의 관계를 탐구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 자살충동과 상관이 가장 높은 변인은 우울이었으며 조절요인인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의 변인이 우울과 자살충동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지지는 청소년 자살충동에 가장 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Keywords : 자살충동, 학교폭력피해경험, 우울,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제1저자 : 노윤채, 교신저자 : 박희서

투고일 : 2012. 7. 25, 심사일 : 2012. 7. 31, 게재확정일 : 2012. 8. 3.

*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Dep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Dep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 Social Welfare, Chosu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to test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support, friend's support and teacher's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d violence in school and adolescent suicidal impulse.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298 adolescents who were experienced violence in school were sampled and surveyed. The analytical results are the followings: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support, friend support and teacher support are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d violence and depression. They are also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d violence and suicidal impulse. On the other hand, only family support is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impulse. This study suggests some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is findings.

▶ Keyword : suicidal impulse, experience of violence in school, depression, family support, friend support, teacher support

I. 서 론

최근 청소년들의 자살문제는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의 자살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1명으로 10년 전에 7.4명에 비해 4배 이상 높아졌으며 1일 평균 자살사망자는 42.2명으로, OECD회원국 평균자살률보다 3배가량 높은 수치를 이르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사망원인은 몇 년 전만해도 운수사고가 주원인이었지만 현재는 자살이 주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비율 또한 인구10만 명당 1999년에 5.1명에서 2009년에는 6.5명으로 점점 증가 추세이다(통계청, 2010)[1]. 이러한 청소년의 자살이유에 대해서는 학교문제, 부모와의 갈등, 우울증 등의 순으로 나타나 육체적·정신적 질병보다는 학교 및 또래관계, 가족문제가 자살의 주요 이유임을 보여주고 있다(경찰청, 2010)[2].

청소년의 자살은 대부분 계획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과 심리적 급격한 변화를 일으켜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성장과정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또래집단과의 갈등이나 가정불화로 가족 간 갈등이 심화되어 자살행동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박병금, 2006)[3]. 최원기(2004)[4]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자살충동은 개인적 심리상태와 학교생활,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 학업성적 등 다양하고 복잡하게 상호작용하여 일어난다고 하였다. 청소년기의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시도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지만(김형수, 2006)[5] 청소년

기에는 무의식중에 자살충동, 자살행동이나 시도가 항상 내재되어 있다(김현순, 김병석, 2008)[6].

특히 청소년기의 또래집단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시기이므로 또래집단의 따돌림이나 폭행 등은 자존감에 큰 상처를 안겨주어 우울증이나, 자살충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서의 또래집단으로부터의 폭력경험이 자살충동이나 자살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경험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모두가 다 자살충동을 느껴 자살을 하는 것은 아니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요인과 자살충동 사이에 완충역할을 하는 보호요인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 청소년기의 자살충동에 대한 적절한 대처나 조절역할을 해 주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 동안 청소년 자살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자살의 영향요인들에 대해 우울, 스트레스, 가족, 학교생활, 또래관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제시되고 있으나(박재숙, 2010; 박재연, 2010)[7][8], 자살충동을 조절해 주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여 청소년 자살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전략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학교폭력경험이 우울과 자살충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가족과 교사, 또래 지지가 완충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인과모형을 작성하여 검증해 봄으로써 청소년들의 자살충동과 우울을 완화시키고 청소년 자살예방에 효과적인 개입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자살충동

청소년 자살충동은 청소년기의 사회화 과정에서 현실과 이상의 부조화를 부정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나타나는 적개심, 공격적 좌절, 분노로 반응하는 행태이다. 본 연구에서 자살충동은 자살생각이나 자살계획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며, 여기서 자살생각은 자신을 해치는 생각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말하며 자살계획은 유서작성, 소지품정리, 도구, 방법, 관련자료 수집 등을 포함한다.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 이론으로는 자살이라고 하는 개인현상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의미를 분석해내고 있는 Durkheim(1897)[9]의 자살론을 통해 최초로 이루어졌으며, Freud는 개인의 심리학적 특성을 밝히려는 심리학적 입장에서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최근에는 스트레스-취약성 이론이 제안되고 있다.

첫째, 사회학적 접근에 의한 자살이론은 Durkheim에 의해 체계적으로 연구되었다. 그는 사회통합가설에서 개인들이 속해있는 사회에 통합된 정도와 자살률이 반비례 한다고 주장하였다. Durkheim은 자살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첫째로는 이기적 자살(Egoistic suicide)로 이것은 지나친 개인주의 또는 사회에 대한 불충분한 통합의 결과로 야기된다고 하였다. 둘째로는 아노미성 자살(Anomic suicide)로, 이것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개인의 가치관의 혼란으로 야기된다고 하였다. 셋째로는 이타적 자살(Altruistic suicide)로, 이것은 개인이 사회에 지나치게 통합된 나머지 자신보다 사회집단을 우선시하는 생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넷째로는 숙명론적 자살(Fatalistic suicide)로, 이것은 개인이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사회적 속박에 개인의 삶이 종속되어 자포자기적으로 살아가는 노예나 포로와 같은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구분하였다. 이러한 Durkheim의 자살유형의 구분은 외부적인 사회현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특성이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살 관련 심리적 요인들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둘째, 심리학적 접근이론으로는, 여기서는 정신분석학적 접근에서 자살에 대한 이해의 시도가 제시되었다. Freud에 따르면, 대상에 대한 증오가 자신에게 내면화 되어 우울함이 발생하고, 이것이 극대화 되었을 때 자기 파괴적인 행위로 자살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으며 자살의 공격적인 측면보다는 선유적인 측면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육성필, 2001)[10].

그리고 Baumeister(1990)[11]는 자살을 '자기로부터의 도피' 즉, 자기와 관련된 고통스러운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6가지 단계로 개념화하였다. 그의 이론에 따라 청소년의 자살 행동을 정리해 보면, 청소년기는 자기 지각능력이 급증하는데 비해 자기도취적 욕구가 높으므로 자신이 바라는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괴리로 인하여 우울감과 부정적인 자기 평가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충동이 강해지게 된다. 이로 인해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에 대한 통제 및 대처능력이 미숙하므로 좌절 경험에 따른 고통스러운 심리상태에서 즉각적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져서 인지적 몰락 상태에 이르러진다. 즉 모든 사상에 의미를 부여하기를 거부하고 모든 것을 피상적 무가치적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는 정신상태가 초래될 위험이 많으므로 충동적으로 자살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셋째, 스트레스-취약성 이론은 앞의 자살 이론들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된 것으로,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이론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사회 심리적 소인과 개인이 속한 환경의 상호작용 경험이 심리장애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즉 취약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개인은 어떠한 사건이나 스트레스에 대하여 견디는 힘이 적어서 쉽게 심리장애를 갖거나 자살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취약 요인이 적은 사람은 심한 스트레스에도 잘 적응할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취약성 이론은 자살배경이 되는 취약성 요인(risk factors)과 자살을 일으킬만한 환경적 스트레스인 촉발사건(precipitation factors)과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Felner and Siverman, 1995)[12].

2. 청소년기의 우울

청소년기의 우울은 또래관계, 가족관계, 학교생활 등에서 받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하며, 무력감, 불안감, 좌절감, 의욕상실, 비판적 사고와 같은 인지적 기능, 정서적 기능, 그리고 식욕부진, 불면증 등 생리적 기능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울은 혼란 정신질환이며 신체, 기분, 사고 및 행동의 모든 면에서 나타난다. 또한 우울증은 식사, 수면, 자신에 대한 느낌, 사물에 대한 생각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자살충동과 관련하여 단일요인으로 가장 위험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모든 연령에서 나타나는 자살이나 자살충동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리장애로 간주한다. 홍영수와 전선영(2005)[13]의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증이 높게 나타나며 자살충동 역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자살시도자의 특성이 우울증 환자의 특성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송동호, 이홍식, 전여숙, 정유숙, 1996)[14].

3. 선행연구

청소년 자살의 영향요인에 대해서는 인구통계적 요인, 가정환경 요인, 사회환경 요인, 학교환경 요인, 심리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되어 왔다. 이 중에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환경 요인으로는 성적과 공부스트레스, 학교폭력, 친구지지, 교사지지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학교폭력피해경험과 자살충동의 관계에서는 청소년 자살위기에 학교폭력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박재연, 2010)[8], 박병금(2006)[3]의 연구에서도 학교폭력이 청소년 자살의 위험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살충동에 대한 심리적 요인으로는 자이존증감, 우울, 스트레스 등을 들 수 있는데 청소년의 자이존증감이 높을 때 자살생각이 사라지고 또한 자이존증감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완충하는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병금, 2006, 홍나미, 정영순, 1999)[3]. 특히 우울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박병금, 2006; 홍나미, 정영순 1999; 김현주, 2008)[3].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폭력피해경험은 청소년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청소년기의 우울 또한 청소년 자살충동에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인과관계 과정에서 자살충동을 조절해 줄 수 있는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특히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등 사회적 지지는 학교폭력에 따른 우울이나 자살충동을 줄여줄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호요인으로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III. 연구설계

1. 연구모형의 설정

스트레스-취약성 이론은 충동적 성향을 가진 청소년들의 자살현상을 잘 설명하는 이론으로 평가되고 있다(김기환, 전명희, 2000)[15]. 본 연구에서도 이 이론에 근거하여 청소년들에게 학교폭력피해경험이 우울을 통하여 청소년 자살충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 이를 조절하는 관련 변인으로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를 설정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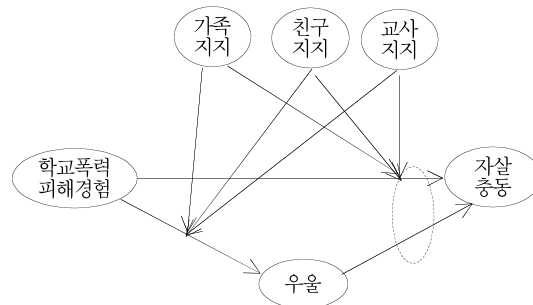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2. 가설의 설정

<가설 1> 사회적 지지(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는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우울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2> 사회적 지지(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는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청소년 자살충동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3> 사회적 지지(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는 우울과 청소년 자살충동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G시의 전문계(실업계)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표본 추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1년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배포된 320부의 설문지 중 313부가 회수되어 97.8%의 회수율을 보였다. 그 중 응답이 부실하였던 15부를 제외한 298부(남: 193명, 여: 105명)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하여 타당도 분석,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교폭력피해경험이 우울을 통하여 청소년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자살충동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4. 변수의 조작화 및 측정

4.1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

청소년 자살충동의 측정도구는 Reynolds(1998)[16]의 자살충동 척도를 수정하여,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생각, 계획, 시도 등의 내용으로 측정하였다. 지난 1년간의 자살에 대한 생각의 빈도를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다. 자살충동의 Cronbach's α 계수는 0.689이었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학교생활에서 또래집단이나 친구들과 간에 발생하는 따돌림이나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Olweus(1993)[17]의 측정도구를 보완하여, 신체적 폭행, 위협, 따돌림, 헛소문, 욕설, 괴롭힘 등 9문항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다. 교폭력피해경험은 Cronbach's α 계수가 0.754이었다.

우울은 Fauistich(1986)[18]등이 개발한 CES-DC(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for Children)를 참고하여, 무력감, 절망감, 무가치함, 외로움 등의 요인으로 측정하였다. 우울의 Cronbach's α 계수는 0.735이었다.

2.2 조절변수

첫째, 가족지지의 측정도구는 Boehm(2007)[19]등이 사용한 측정도구를 참고하여 가족 간 존중도, 믿음, 긍정적 수용력, 응집력 등 10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Cronbach's α 계수는 0.869이었다. 둘째, 친구지지는 정서적 안정감, 믿음, 친밀감, 도움, 인정 등 중 13문항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으며, Cronbach's α 계수는 0.778이었다. 셋째, 교사지지는 Dubow & Ullman(1989)[20]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교사와의 친밀감, 신뢰, 인간적 관계 등 9문항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의 지지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지지의 Cronbach's α 계수는 0.799이었다.

IV 실증분석

1. 기술적 통계분석

본 연구의 연구변수들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한 결과는 <표1>과 같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폭력피해경험은 1.172, 우울 2.216, 자살충동 1.388, 가족지지 3.554, 친구지지 3.676, 교사지지 3.159 등으로 나타났다.

표 1. 기술통계량분석
Table 1. Analysis of descriptive statistics

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학교폭력 피해경험	1.172	.512	4.852	27.989
우울	2.216	.969	.577	-.350
청소년자살충동	1.388	.582	2.185	5.071
가족지지	3.554	.845	-.235	.091
친구지지	3.676	.705	.066	-.318

교사지지	3.159	.711	-.219	1.096
------	-------	------	-------	-------

2.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에 따른 변수간의 관련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 자살충동과 우울은 $r=.621$ 로 가장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가족지지와 우울은 $r=-.388$ 로, 가족지지와 청소년 자살충동은 $r=-.308$ 로 다소 높은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변수 간 상관관계
Table 2.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변수명	학교폭력 피해경험	우울	청소년 자살충동	가족 지지	친구 지지	교사 지지
학교폭력 피해경험	1.000					
우울	.256**	1.000				
청소년 자살충동	.257**	.621**	1.000			
가족지지	-.145*	-.388**	-.308**	1.000		
친구지지	-.060	-.253**	-.056	.270**	1.000	
교사지지	-.063	-.172*	-.081	.313**	.272**	1.000

* : $p < 0.05$, ** : $p < 0.01$ 양측검증

3. 연구가설의 검증

청소년 자살충동과 관련하여 조절변인으로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의 영향 정도를 고찰하고자 조절효과 검증을 하였다.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에 의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3단계의 위계적 조절회귀 분석을 하였다.

조절효과는 독립변수(X)와 조절변수(Z)의 교적항(XZ)을 종속변수(Y)에 회귀분석($XZ \rightarrow Y$) 함으로써 확인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청소년 자살충동을 종속변인으로 사용하여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X \rightarrow Y$)를, 2단계에서는 조절변수($Z \rightarrow Y$)를, 마지막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교적항($XZ \rightarrow Y$)을 투입하였다.

1.1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의 관계에서 결과변수인 상호작용 결과를 살펴보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폭력 피

해경험과 가족지지가 상호작용하였을 때($\beta=.386, p<.01$)는 99%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친구지지의 상호작용($\beta=.458, p<.01$)하였을 때도 99%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교사지지의 상호작용($\beta=.465, p<.01$)을 하였을 때 역시 99%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각 교적항의 β 값의 부호는 독립변수인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β 값의 부호와 같은 방향($\rightarrow\rightarrow$)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β 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등 사회적 지지로 인하여 감소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는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우울 관계에서 긍정적인 보호요인 즉,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Table 3.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of violence in school and depression

종속 변수	독립변수	β	t	p	R ²	ΔR^2	F	p		
우울	가설 1-1 학교폭력 피해경험 × 가족지지	학교폭력 피해경험	.485	4.535	.000**	.256	.065	20.562	.000	
		가족지지	-.409	-6.734	.000**	.191	.185	34.506	.000	
		학교폭력 피해경험 × 가족지지	.386	3.836	.000**	.191	.185	34.506	.000	
		가설 1-2 학교폭력 피해경험 × 친구지지	학교폭력 피해경험	.485	4.535	.000**	.065	.062	20.562	.000
			친구지지	-.329	-4.337	.000**	.122	.116	20.311	.000
			학교폭력 피해경험 × 친구지지	.458	4.403	.000**	.122	.116	20.311	.000
	가설 1-3 학교폭력 피해경험 × 교사지지	학교폭력 피해경험	.485	4.535	.000**	.065	.062	20.562	.000	
		교사지지	-.220	-2.889	.004**	.091	.085	14.711	.000	
		학교폭력 피해경험 × 교사지지	.465	4.399	.000**	.019	.085	14.711	.000	

* : p < 0.05, ** : p < 0.01

2.2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자살충동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청소년 자살충동과 관계에서 결과변수인 상호작용 결과를 살펴보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가족지지가 상호작용을 하였을 때($\beta=.247, p<.01$)는 99%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친구지지의 상호작용($\beta=.290, p<.01$)하였을 때는 99%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학

교폭력 피해경험과 교사지지의 상호작용($\beta=.288, p<.01$)을 하였을 때도 역시 99%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각 교적항의 β 값의 부호는 독립변수인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β 값의 부호와 같은 방향($\rightarrow\rightarrow$)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β 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은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등 사회적 지지로 인하여 감소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는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따른 청소년 자살충동에 긍정적인 보호요인으로서 조절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자살충동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Table 4.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of violence in school and suicidal impulse

종속 변수	독립변수	β	t	p	R ²	ΔR^2	F	p		
청소년 자살충동	가설 2-1 학교폭력 피해경험 × 가족지지	학교폭력 피해경험	.293	4.567	.000**	.066	.063	20.858	.000	
		가족지지	-.191	-5.073	.000**	.142	.136	24.173	.000	
		학교폭력 피해경험 × 가족지지	.247	3.969	.000**	.142	.136	24.173	.000	
		가설 2-2 학교폭력 피해경험 × 친구지지	학교폭력 피해경험	.293	4.567	.000**	.066	.063	20.858	.000
			친구지지	-.327	-4.224	.000**	.068	.062	10.719	.000
			학교폭력 피해경험 × 친구지지	.290	4.510	.000**	.068	.062	10.719	.000
	가설 2-3 학교폭력 피해경험 × 교사지지	학교폭력 피해경험	.293	4.567	.000**	.066	.063	20.858	.000	
		교사지지	-.344	-4.487	.000**	.071	.065	11.183	.000	
		학교폭력 피해경험 × 교사지지	.288	4.485	.000**	.071	.065	11.183	.000	

* : p < 0.05, ** : p < 0.01

3) 우울과 자살충동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우울과 청소년 자살충동과 관계에서 상호작용 결과를 살펴 보면, 우울과 가족지지가 상호작용을 하였을 때($\beta=-.162, p<.05$)는 95%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교적항의 β 값의 부호는 독립변수인 우울의 β 값의 부호와 반대방향($\rightarrow\rightarrow$)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이 높을수록 청소년 자살충동이 높아지는 관계에서 가족지지는 강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청소년 자살충동을 감소시킨다는 결과이다. 그러나 우울과 친구지지의 상호작용($\beta=-.034, p=.317$)하였을 때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우울과 교사지지의 상호작용($\beta=.000, p=.980$)을 하였을 때도 역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표 5. 우울과 자살충동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Table 5.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impulse,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t	p	F2	$\Delta F2$	F	p	
청소년 자살충동	조건 3-1	우울	.373	13.649	.000**	.386	.384	186.28	.000
		가족지지	.561	5.501	.000**	.392	.387	94.908	.000
		우울 × 가족지지	-.162	-2.111	.036*	.401	.394	65.498	.000
		우울	.373	13.649	.000**	.386	.384	186.28	.000
	조건 3-2	친구지지	.089	2.310	.022*	.397	.393	97.175	.000
		우울 × 친구지지	-.034	-1.002	.317	.399	.393	65.119	.000
		우울	.373	13.649	.000**	.386	.384	186.28	.000
		교사지지	.022	.583	.560	.387	.383	93.104	.000
	조건 3-3	우울 × 교사지지	.000	.026	.980	.387	.381	61.859	.000

* : p < 0.05, ** : p < 0.01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지지는 청소년 자살충동과 우울을 예방하고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조절변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친구지나 교사지지 또한 대체로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보인다. 그러나 우울이 청소년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는 친구지나 교사지지보다는 특히 가족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V. 논의 및 결어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피해경험과 청소년의 우울, 자살충동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으며, 이러한 인과관계에서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등 사회적 지지가 조절변수로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첫째,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이 청소년 자살충동과 우울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선행연구(박병규, 2006)[3]에서도 학교폭력이 청소년 자살의 위험요인임을 증명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자살충동에 대한 직접적 요인으로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있어서 집단따돌림, 집단폭행, 협박, 욕설 등 학교폭력을 당한 청소년들은 충동적으로 극단적인 선택, 즉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우울은 청소년 자살충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박재연(2010)[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청소년의 우울은 청소년 자살위기에 가장 강력한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우울이 청소년 자살을 예고하는 매우 위험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단계에 놓인 청소년들을 선별하여 치료함으로써 자살충동에 이르게 하지 않도록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로 긍정적인 자아 찾기, 자존감 향상 등 예방적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울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에게 사회복지실천가, 교사,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은 심리적 상담의 지원을 통해 조기에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요인으로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청소년 자살충동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가족지지는 청소년 자살충동과 우울을 감소시키는 가장 큰 조절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소년기의 건전한 가치관과 사고형성에 증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이 바로 가족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가족으로부터 심리적 안정감과 지지체계의 기초가 마련되고 있다고 여겨지며 부모자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가족 응집력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가족 지지를 구성하는 하위 요인인 가족의 응집력, 가족 간 긍정적 수용력, 위기 대처능력이 클수록 그 조절효과 또한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친구지지는 청소년기에 또래 집단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우울과 청소년 자살충동을 감소시키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박재연(2010)[8]의 연구에서도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지지집단인 또래로부터 집단폭행·협박을 당하거나 집단따돌림 등을 당한 후 충동적 성향의 청소년들에게 있어 극단적이고 폭발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살위험이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또래지지체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면 극단적 상황을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자살충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또래집단의 지지와 관계형성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교사지지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생활에서 나타나는 조절요인으로 학교폭력피해경험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들에게는 교사의 자질이나 교사와의 친밀도, 수업의 형태 등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소년 전문가나 교사들은 친구의 지지체계가 청소년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울과 청소년 자살충동의 관계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는 우울을 겪고 있는 연구대상자와 교사와의 친밀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교사나 심리상담사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는 설문 방식이 자기보고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연구대상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청소년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인을 규명하는데 그쳤지만, 청소년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에 대한 좀더 포괄적인 연구와 사례 중심의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1]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9 statistics in the cause of death,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179505
- [2] the National Police Agency, 2010 police statistical year book,
http://www.police.go.kr/infodata/history_statistics_2010.jsp
- [3] Park, Byunggeum (2006). "The exploration of ecological factors of youth's suicide impulse", Chungbook Univ. Ph.D. thesis.
- [4] Choi, Wongee (2004). "A study on social structural cause of youth's suicide", Kyunghee Uni. master's thesis.
- [5] Kim, Hyungsoo (2006). "The present condition if suicide and prevention measure according to life cycle", Welfare for senior, 134: 271~292.
- [6] Kim, Hynsoon, Kim, Byungseok (2008). "The test of structural model between suicide impulse and the related factors", Korean counsel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20(2): 325-343.
- [7] Park, Jaesook (2010). "The impact of school risk factors affecting on youth's suicide impulse - focusing on Baumeister's Escape Theory-", Gyeongbook Uni. Ph.D. thesis.
- [8] Park, Jaeyeon (2010). "Youth's suicide crisis and resilience", Ehwa Woman Uni. Ph. D. thesis.
- [9] Durkheim, E. (1897). Suicide, New York: The Free Press.
- [10] Yook, Sungphil (2001). "The exploration of suicide related factors and the development of cure program", Korea Uni. Ph.D. thesis.
- [11] Baumeister, R. L. (1990). "Suicide as escape from self", psychological review 97: 90~113.
- [12] Felner, R. D. and Silverman, M. M. (1995). "Suicide prevention program: Issues of design, implementation, feasibility, and developmental appropriate, eds" In Suicide Prevention: Toward the year 2000, ed al.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13] Hong, Youngsoo, Jeon, Sunyoung (2005). "The impact of youth's life stress on suicide impulse and meditating effect of depression",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19: 125~149.
- [14] Song, Dongho, Lee, Hongsik, Jeon, Yosook, Jeong Yusook (1996). "The psychiatric traits of youth's suicide trial", Neurochychyatyry 35(6): 1366~1375.
- [15] Kim, Giwhan, Jeon, Myunghee (2000). "A study on the traits and types of youth suicide", Korean child welfare 9(1): 127~152.
- [16] Reynold, W M (1988).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17] Olweus, D. (1993). Building at schools: bullies and their whipping boys, Washington D. C.: Hemisphere Press.
- [18] Fauistich, M., Carey, M., Ruggiero, L., Enyart, P. & Gresham, F. (1986). "Assessment of depres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t : An evaluat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for Children(CES-DC)",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3: 1024~1027.
- [19] Boehm A., Wertlieb D., Bendori, R. & Fishman, MA. (2007). "Building resilience among children at risk : action research to guide community-based programs", 2007 International Qualitative Research Annual Meeting.
- [20] Dubow, E. F. & Ullman, D. 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1): 52~64.

저 자 소개



노 윤 채

2012 :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현 재: 광주광역시 자살예방센터 상담원

관심분야: 청소년 복지, 가족복지,
상담심리, 사회복지실천

Email : abstain77@daum.net



신 정 숙

2012 :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현 재: 지역아동센터 관장

관심분야: 아동복지, 가족복지,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실천

Email : sjs2726@daum.net



박 희 서

1993년 2월 :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1989년~현재: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관심분야: 지식정부론, 마케팅, 정책학

Email : hspark@chosun.ac.kr

